

## ADB, 사업준비 지원 강화 등을 위한 신규 금융수단 도입

## 1. ADB 이사회, 신규 금융상품 및 지원제도 채택('18.7월)

- 아시아개발은행(ADB) 이사회는 사업준비금융과 정책연계보증의 신규 도입, PPP 사업과 소액경비 지원을 위한 퍼실리티 설립 등을 승인
  - 나카오 ADB 총재는 상기 이사회 결정이 진화하고 있는 개도국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부응할 것이라고 평가

## 2. 사업준비 지원 강화

- (사업준비금융) Project Readiness Financing은 개도국 인프라 개발 사업 관련 F/S, 설계 등 사업 준비활동\*을 지원하는 대출로 기존 기술협력차관 및 사업설계퍼실리티(Project Design Facility)를 대체
  - \* 상세설계, 세이프가드 사전활동, 시범사업, 구매·재무관리·Safeguard 이행 등 사업시행역량 강화 포함
  - 사업 본단계에 대한 ADB 금융지원이 연계되어야 한다는 조건 없이 독립적으로 지원 가능
  - 관련 서류 간소화, 금융 규모별 승인주체 구분(15백만불 이상건은 ADB 이사회 승인, 이하 건은 경영진 승인) 등으로 기존 퍼실리티에 비해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 가능(예상 승인소요기간 4~6개월)
- (소액경비 지원) Small Expenditure Financing Facility는 컨설팅 서비스(F/S, 상세설계 포함), 시범 사업뿐만 아니라 운영·유지 및 재건\* 비용도 지원 가능한 다목적 단기(5년) 대출 제도
  - \* 사업완공 이후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한 금융 수요 발생 시
  - ADB 금융지원 사업을 위해 소요되는 소액 경비(15백만불 이하)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준비수준 향상 및 성과 제고
  - 국가별 지원한도를 관리하며 ADB 이사회 승인(퍼실리티 규모 및 지원 경비유형) 이후, 경영진이 개별 경비 지원 결정

### 3. 신용보강을 통한 민간자금 동원 역할 강화

- (정책연계보증) Policy-Based Guarantee는 개도국 정부의 일반예산 보충을 위한 상업대출 또는 채권발행에 대한 신용위험 보증
  - Policy-Based Loan과 마찬가지로 합의된 정책성과(경제구조 개혁, 섹터 개발 프로그램 이행 등) 달성을 조건으로 하여 시행
- (PPP 지원) PPP Standby Financing Facility는 개도국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대금을 적시에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
  - ADB 이사회는 동 퍼실리티의 5년 시범 운영을 승인하였는바, 이후 운영성과, 제도보완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할 계획

### 4. 시사점

- 금번 ADB 이사회 결정은 인프라 사업의 대형화, 고도화 및 환경·사회 이슈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업준비 업무가 복잡해지고, 관련 금융수요 확대되고 있는 점 반영
  - ADB는 신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지원절차와 제도를 개선\*해 왔으나, 개도국은 보다 빠른 사업준비 및 시행을 지속 요구
  - \* 2011년 PDF 시범 도입, 2016년 무상 기술협력제도 개혁 등
- 사업준비 수준\*이 사업 기간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차관신청 준비단계 자체를 직접 지원할 필요
  - \* F/S, 상세설계, 세이프가드 계획, 구매 계획, 등이 완비되어 금융지원 결정 직후, 사업자 선정·구매 단계 진행이 가능한 경우가 가장 이상적
  - 최근 EDCF도 주요 협력국에 대한 사업준비차관 제공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준비 지원 및 엔지니어링 분야 협력 확대 추진 중

자 료 : ADB 보도자료(ADB Boosts Responsiveness and Flexibility with New Products, July 3, 2018)  
ADB 웹사이트(Financial Products: Public Sector Financing, July 18, 2018)  
Devex 웹사이트(What to know about ADB's new financing facilities, July 12, 2018)

작 성 : 선임심사역 구 윤 정, [kooyj@koreaexim.go.kr](mailto:kooyj@koreaexim.go.kr)